

2009년은 마니커의 해 주식회사 마니커 (주)마니커, 본사 사옥 이전으로 재도약 다짐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마니커가 본사 사옥 이전과 함께 닭고기 시장 재편에 나섰다.

(주)마니커(회장 한형석)는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성남에서 용인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 위치한 (주)마니커의 신사옥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축건물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분기점 옆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전망이 좋아 광고효과까지 높은 최적의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주)마니커 본사 사옥 이전은 그 동안의 불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와 일치하여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즉,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본사 사옥 이전과 구조개선의 완성, 그리고 동두천공장 투자사업 등과 연결하여 2009년을 명실공히 마니커의 해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조직의 체질강화... 닭고기 시장 재편

(주)마니커가 본사 사옥 이전을 계기로 올해 재도약과 닭고기 시장 재편을 자신하게 된 것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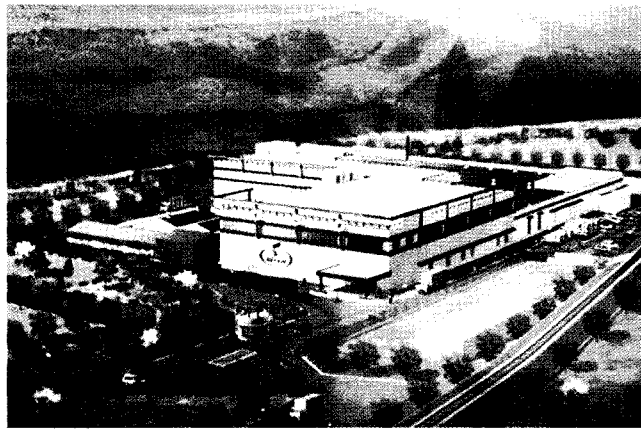
조직의 체질강화를 위해 (주)마니커 F&G와 (주)마니커 F&C의 분사 등 지난 2년간 꾸준히 구조개선을 추진해 온 (주)마니커는 그 결과 2008년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마니커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총 2,53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8.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중 영업이익은 2억6천만원을 시현, 전년 대비 무려 100억원이 개선돼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또 경상이익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밖에도 업계 최초로 경쟁사인 농협목우촌과 손잡고 '상생' 경영에 돌입, 각각 생산과 영업에서의 강점을 공유하게 되었다.

또한 (주)마니커는 경기도 동두천공장에 200억원을 투자해서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마니커는 단계별로 증설공사를 진행하여 도계라인은 올 여름 성수기 이전에 완공,



동두천공장 조감도

가동하고 부분육 등 가공라인은 가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증설공사가 완공되면 현재 1일 10만수 도계능력에서 20만수로 늘어나며, 부분육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주)마니커는 고부가가치의 부분육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어 손익이 개선되고 대량생산으로 인해 통닭 1마리당 생산비도 17%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두천공장 증설은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마니커는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와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주)마니커 한형석 회장은 "닭고기 산업은 불황에 강한 업종이어서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며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과 원가절감 및 고품질 제품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체제 정비와 본사 사옥 이전, 동두천공장 증설 등 닭고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작업을 해 온 (주)마니커.

2009년 (주)마니커의 행보가 그 어느 해보다 기대된다.